

TV다큐멘터리의 아동성폭력 재현 방식

-'KBS시사기획 쌤'을 중심으로-

Representation of Child Sexual Abuse in TV Documentary

-Focused on KBS 'Current Topics Ssam'-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Sook-Yeong Hong(paris2@ha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TV에서 아동성폭력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BS 1TV '시사기획 쌤'에서 방영된 시사다큐멘터리 두 편의 서사구조와 발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TV서사는 이들의 인권과 피해자의 아픔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하며, 남성의 사회적 권력은 형벌을 감해주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피해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사사화한다. '작고 쉬우며 약한'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TV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쌤'을 통해 보여준 아동성폭력의 재현은 사건중심의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나 국민적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 중심어 : | 아동성폭력 | TV다큐멘터리 | 시사기획 쌤 | 아동성폭력 가해자 | 아동성폭력 피해자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narrative structure and spoken contents of two TV documentaries televised in KBS 1TV 'Current Topics Ssam' to examine how child sexual abuse was represented on TV. As a result, the study could see that child sexual abuse attackers were stressed by a system to monitor and punish them and TV documentary took a neutral attitude between their human rights and pain of the victims. And it emphasizes 'abnormal' sides such as attackers' drinking or history of mental illness, and men's social authority individualizes a woman's damage into private pain by imposing a light punishment on child sexual abuse attackers and letting them not punished. Child sexual abuse victims treated to be a sexual object as a 'small, easy and weak' woman are represented as a lethargic human who is afraid of revenge and lives in pain. The representation of child sexual abuse through 'Current Topics Ssam' has its limit in the fact that it neglected understanding social context of child sexual abuse by forming an event-centered immediate and fragmentary narration and didn't play a right role in making an efficient and long-term plan considering actual conditions of Korean society and leading the people's participation.

■ keyword : | Child Sexual Abuse | TV Documentary | Current Topics Ssam | Child Sexual Abuser | Child Sexual Abuse VictimScience |

* 본 연구는 한세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00914-003

접수일자 : 2010년 09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09일

교신저자 : 홍숙영, e-mail : paris2@hansei.ac.kr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아동성폭행 사건 수는 1천81건, 2008년 1천220건, 2009년 1천17건으로 매년 평균 천 건이 넘게 일어난다[1].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나 증가하였다[2]. 선진국의 경우 증가율이 감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연달아 터지면서 아동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두 소녀를 유괴하여 성폭행한 뒤 살해한 안양의 이해진·우예슬 사건, 2009년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에 의한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김길태에 의해 자행된 부산의 여중생 피살사건, 김수철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들이다.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아동성폭력의 맥락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채 외형적 정보만을 전달하여 일시적 동정론을 유발시키고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아동성폭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를 점검해 보는 일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일시적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데 있다. 성적 욕구를 폭력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손쉬운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저지르는 잔혹한 아동성범죄는 보호받아야 할 여아를 남성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리고 연약하며 쉬운'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범죄적 표출일 뿐 아니라 성적인 매력 유무에 따라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풍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TV버라이어티쇼나 토크쇼

에 등장하는 여아의 의상이나 말투, 댄스 등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성의 축소판으로 성적 대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아역 탤런트의 벗기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목욕하는 장면이나 연애하는 장면들이 추가로 삽입되기도 한다.

일례로 MBC 예능 프로그램 세 바퀴에 출연했던 아이돌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골반춤'과 관련한 논란은 미성년의 선정적인 춤과 이를 보며 중년 남성과 여성 출연자들이 나누는 낮 뜨거운 대사가 더욱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런 것이 쌓이면 문제의식조차 없어질지 모른다는 강한 비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9월 22일 KBS1 TV의 '시사기획 씬'에서 다룬 아동성폭력 관련 시사 다큐멘터리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분노를 촉발시키고[4]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 조두순에 의해 등 꽃길에 끌려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신체적 손상을 입은 아홉 살 나영이의 비극이 방영되자 각 사회단체는 물론 정치인,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 이와 같은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을 다루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시사다큐멘터리 2편을 분석하여 아동성폭력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다룬 아동 성폭력의 서사를 분석하고 다큐멘터리가 아동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성폭력을 다룬 TV시사다큐멘터리는 어떠한 서사구조를 가지는가?

둘째, TV시사다큐멘터리는 아동성폭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시사다큐멘터리 두 편을 선정하여 이야기구조와 발화내용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아동성폭력의 현실재현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을 다룬 두 편의 TV다큐멘터리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성폭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며, 아동성폭력의 사회적 맥락과 미디어의 진지한 접근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시사다큐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KBS1 TV 밤 10시에 방영되었던 KBS 시사기획 ‘쌈’ 으로, 지금은 ‘시사기획 KBS10’으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조두순에 의해 큰 피해를 당한 아동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9월22일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이하 ‘전자발찌’)라는 제목으로 아동성폭력과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10월 23일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안하다, 내영아!’(이하 ‘미안하다’)를 방영하였다. 연구자는 KBS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내레이션을 녹취하고 각 장면들을 반복하여 시청하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다큐멘터리 텍스트 분석은 질적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채트먼(Chatman, 1978)은 서사물을 크게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야기는 내용의 형식이 되는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사건적 요소는 행위와 돌발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며, 사물적 요소는 등장인물과 배경을 포함한다. 담론(표현)은 표현의 형식인 서사적 전이의 구조와 표현의 질료가 되는 언어, 영상, 무용, 연극 등 발현 매체를 포함한다[6].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구조 분석을 통해 그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한편, 발화내용을 분류하여 아동성폭력의 의미와 재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KBS시사기획 쌈에서 방영된 두 편의 아동 성폭력 프로그램의 시퀀스 구성과 이항대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아동성폭력의 주요 등장인물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언급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우리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며, TV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III. 문헌 및 이론 검토

1. 성폭력에 관한 연구

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Mackinnon은 남성의 입장에서 강간은 성행위, 포르노는 에로티시즘,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으로 표현되지만, 여성적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가 여성에게 상처를 주고, 지배하며 여성을 통제한다는 것이다[7]. 이러한 주장은 성폭력에 대한 성별 시각 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한국의 여성학자들은 페미니즘을 토대로 성폭력의 개념정립에서 시작하여 성과 폭력 및 정치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상숙은 성폭력 개념사를 연구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는 성별갈등보다는 계급적 갈등을 우선시하여 확장된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운동으로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8].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성폭력은 ‘남녀의 권력관계’에서 오는 ‘여성억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부분 ‘사회적 의미에서의 폭력’으로 간주하였다[9]. 이때부터 성폭력은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폭력이나 구타, 성희롱 등을 성별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디어 분야에서 성폭력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홍지아는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2008년 1년 동안의 성폭력 관련 기사 173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남성의 공격적 성욕”을 기정사실화하며, “여성을 예비피해자”로 규정하여 여성 스스로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하였고 있었다[10]. 이는 성범죄 기사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는 것으로 한국 언론이 재생산하는 성폭력의 의미가 가부장적 가치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1].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여성학과 미디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아동학대의 일부 혹은 성범죄의 하위범주로 취급되어 주로 의학, 간호학, 법학, 범죄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례나 경험을 중심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의 입장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디어 분야에서 아동성폭력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아동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 남녀권력의 문제라면 아동성폭력은 아동과 성인의 권력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주로 여아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아동성폭력은 아동을 ‘작고 약한 여성’으로 보는 사회풍조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동성폭력을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남성과 ‘어린 여성’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noize는 아동성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자나 성인의 쾌락 또는 자극을 위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sexual exploitation)을 의미한다. 이 때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기노출이나 포르노 연루, 성행위, 아동매매춘 등이 이에 해당된다[12].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은 아동과 여성의 권리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미디어에 의해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아동을 남성적 시각으로 대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 신선인은 아동성폭력을 조장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암묵적으로 관대하게 봐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포함하는 모든 상업적 착취를 비롯한 유해 환경’을 사회적인 아동학대로 보는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였다[13].

IV. 분석결과

1. '뺨'의 이야기 구성

‘전자발찌’편은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동성범죄자 박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하여 등갓길에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의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면받고, 나영이는 악몽에 시달린다. 또 다른 아동성폭행범 윤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만, 가족들은 보복을 두려워한다. 학교경비원마저 초등학교를 성추행하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소도에 수감된 이씨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십대를 성폭행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털어놓으며 아이들은 좀 더 ‘순수한 상대’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시퀀스는 아동성폭행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아동성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전자발찌제도 및 신상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미국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성폭력범죄자 특별병동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동성범죄가 성기호증이며 병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 예방, 처벌, 아동보호 시스템이 초보단계라고 지적하며 피해아동의 아픔과 가해자 인권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자발찌’ 편 이야기 구성

번호	‘전자발찌’의 내용
1	아동성범죄 전과자 박씨, 전자발찌착용 스트레스호소 주인들은 아동성범죄 전과자의 거주 사실을 전혀 모름 전자발찌와 인형 사진이 나타나며 프로그램 시작됨
2	등갓길에 성폭행을 당한 이훈 살 나영이의 비극

	아버지의 증언과 진술하게 피해를 당한 사진이 공개 악몽에 시달리는 피해 아동
3	죽음으로 사죄하는 것밖에 없다는 아동성범죄자 윤씨 법인을 검거하였지만,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가족
4	초등학교 두 명을 성추행한 학교경비원 62살 송모씨 기사는 송씨와 인터뷰를 시도하지만, 송씨는 묵묵부답
5	교도소의 아동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장면 자녀 두 명을 둔 가정으로 미성년을 성폭행한 이씨 아동을 보고 계획, 좀 더 손쉬운 상대를 찾아 범행
6	늘어나는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구성애씨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며 형식적성교육과 음란 동영상 미성년 성범죄를 늘린다고 주장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 모두 석방 묻어야 한다는 학교관계자, 여성단체는 수사잘못 지적
7	검찰이 아동성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현실 초범, 재범, 반성, 나이, 술 등을 이유로 형 감면
8	전자발찌는 착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재범율을 낮추지만, 부족한 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자 감시시스템은 위치확인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접근금지구역 설정
9	인양 초등학교 살해 사건 이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 공개 절차와 자격이 까다로워 효율성이 떨어짐 미국은 성범죄자 지도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사는 곳, 범죄 내역까지 상세히 제공됨 성범죄자들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10	지난 5월 성폭력범죄자들을 전담하는 특별병동이 생겼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11	미국은 FBI가 아동 성범죄자를 끝까지 쫓으며, 처벌과 교육이 효과없는 상습적 범죄자에게는 약물 사용 화학적 거세 법인을 발의한 반민식 의원은 아동성폭력범이 성기호중이며 병이라고 주장
12	아동성범죄 관련 공익광고 아동성범죄 예방, 처벌, 아동 보호 시스템 초보단계 피해아동의 아픔과 가해자 인권 사이에서 고민

‘미안하다’편은 아동성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 장면으로 시작된다. 나영이는 아픔을 잘 견뎌 내며,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도 보여준다. 그러나 나영이의 도움으로 법인을 검거했지만, 나영이의 피해는 크고 보상은 형편없다. 이에 시민들이 모금 운동까지 벌이며 나영이를 돕겠다고 나섰다. 만취상태라고 감면받은 조두순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또 다른 피해자 11살 은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 성폭행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친구였던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한 피해자는 자살기도까지 했다는 고백을 한다. 친구 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한 아이의 엄마는 피해자가 더욱 고통 받는 현실이라며 괴로워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부는 예방과

처벌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다. 아동성범죄자를 끝까지 쫓아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과 심리 치료 덕분에 변화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성범죄 전과자의 모습이 등장한다.

결론에서는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안하다’편의 이야기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자발찌’ 편 이야기 구성

번호	‘미안하다’내용
1	아동성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촛불문화제 아홉 살 소녀의 상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2	나영이는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으며 의사를 희망 성형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배변 주머니를 치는 고통 나영이가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정신과 의사. 검찰수사과정에서 나영이는 5차례나 진술을 반복 만취상태를 감안해 감형받은 조두순 나영이 가족의 보상이 형편없자 시민들의 모금 운동
3	청송 제 2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 조두순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
4	서울광장의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서명운동 남의 일처럼 지나가기 싫어서 참여한 시민들
5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은지가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교사.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성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하나 처벌 받은 사람은 없음
6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5년동안 부모님 친구인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자살까지 생각하였음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
7	친구 할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아이.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가해자 무죄판결 받음 동네 사람들의 태도에 더 고통 받는 피해자 가족
8	아동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형량에 대해 많다고 생각하며, 법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형량을 감해주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아동성폭행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법을 간구하고 으며 술 마시고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방안도 논의 중
9	내년부터 인터넷에 아동성폭행범 신상 공개 형량을 높이고 전자 발찌, 신상등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범죄는 증가, 전자발찌를 찬 채 어디든 갈 수 있음 아동성범죄 종합대책이 효과적이라면 실천이 중요 아동성범죄는 끝까지 해결한다는 집요함이 필요
10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30년전 미국에서 십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됨 미국 성범죄자 격리수용 교도소에서는 출소 1년전부터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실시하여, 90% 재범 억제 25년 전 친말을 성추행한 제이크는 교도소에서의 집중적인 치료와 교육으로 출소 후 새로운 생활을 함
11	아동성범죄 예방, 가해자 처벌, 아동 지원은 국가책임 정부의 대책 보완과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필요

‘시사기획 씬’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피해자의 참혹한 상황이 가족과 본인, 사진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러한 증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나영이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었으나 아동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 ‘나영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성폭행의 사례들을 사사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시스템의 부재와 법제도의 미비, 남성이 지니는 막강한 권력이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나영이’라는 한 여자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조두순’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건을 몰고 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 게시판은 ‘조두순’이라는 개인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뒤덮였으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나영이’ 개인을 돕자는 사회적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결론을 내리면서 ‘전자발찌’편에서는 인권과 아픔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미안하다’편에서는 아동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국민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국민이 감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다소 모호하고 중립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는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대로 불러일으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개인화·사사화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2. 이항대립

‘시사기획 씬’의 이항대립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션’의 이항대립 분석

	‘전자발찌’편	‘미안하다’편
대립구조	가해자/피해자 남성/여성 한국/미국(선진국) 인권/아픔 짐승/인간	가해자/피해자 남성/여성 한국/미국(선진국) 제도/피해자 가족 정부/국민

‘전자발찌’편과 ‘미안하다’편 모두 주 대립축은 가해자와 피해자이며, 이들은 곧 남성과 여성으로 대립된다. 피해자가 아동이지만, 아동은 남성들의 ‘어린 여성’ 선

호라는 기호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인 여성보다 더 ‘취운 존재’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의 이항대립이 ‘아동/성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남성’의 축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하나의 대립 축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다. 아동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이자 초보단계에 있는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되며, 선진국의 아동성폭력 시스템에 대해 선망과 동경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기보다는 외국 제도에 대한 거의 무비판적 수용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주 뒤 방영된 ‘미안하다’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항대립은 ‘제도/피해자(가족)’, ‘정부/국민’에 관한 부분이다. ‘전자발찌’편에서 (가해자의)인권/(피해자의)아픔이라는 두 축에서 갈등하며 가해자가 비정상적이고 짐승과 같다고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미안하다’편에서는 가해자의 정상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감면이나 감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게 하며, 신고를 하고도 가해자의 형이 적어 불안에 떨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가족포함)와 제도를 대립되는 축에 위치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정책시행을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3. 아동성폭력 가해자

‘시사기획 씬’에서 방영된 두 편의 아동성폭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발화내용은 성범죄자와 아동성폭력의 피해아동에 관한 부분이다. 이들을 언급한 가해자, 피해자, 나레이션, 전문가, 시민 등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성범죄가 TV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프로그램은 시작부분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아동성범죄 전과자 박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자발찌가 ‘족쇄’이자 ‘스트레스’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나레이션:유치원생을 성추행한 박씨는 앞으로 2년간 이 족쇄를 차고 살아야...(2009.09.22)

박씨:스트레스 쌓여서 편한 날이 하루나 있어?
[...] 스트레스 쌓여서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방
구석에...(2009.09.22)

24시간 감시당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찌 부착자들
은 부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며 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이어 시행되는 인터넷 신상공개 제도가 가해
자에게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온다.

홍정원/위치추적관제센터장: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
감...(2009.09.22)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아마 살 곳이 없을 거예요.
[...] 이 제도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일지
아마 내년에 시행되면 알게 될 겁니다. (2009.10.13)

프로그램은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해 이
것이 가해자의 인권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
하고 있다.

나레이선:(화학적 거세 법안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약물부작용이 있을 수 있
다는 우려...(2009.09.22)

피해아동의 아픔과 가해자의 인권 사이에서 어떤 대
책을 마련해야 할지 [...] 우리 어른들 모두가 더 고민
해야 합니다. (2009.09.22)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들이 ‘비정
상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때 ‘술’이나 ‘정신적 질병’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나레이선:법원은 가해자 57살 조모씨에게 징역 12년
을 선고했습니다 [...] 강간치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범
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2009.09.22)

윤OO/연쇄 성폭행 피의자 : 술 먹고 제 정신 아닐 때
했어요.(2009.09.22)

박민식/화학적거세 발의의원:아동성폭력범은 [...]
성기호증이죠 [...] 병이라고 봐야 합니다...(2009.09.22)

화학적 거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동성폭력범
이 성기호증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2007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성범죄자 데이터를 보면 전체 성
폭력범죄자 중 12.3%만이 노출증, 마찰도착증, 소아기
호증과 같은 성도착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폭력 가
해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짐작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의 증언은 피해의 잔혹함을 알려주
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상인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나영이 아버지:...그런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
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2009.09.22)

비정상적인 상태로 재현되는 가해자는 그러나 가족
을 꾸려 가장이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범행을 계
획한 뒤 실행에 옮길 뿐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것이다.

나레이선:...이씨는 초등학교 6학년생 등 10 대 두 명
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습니다. 이씨도 자녀 두 명을
키우는 가장입니다.(2009.09.22)

이충식(가명)/아동성범죄 수감자:...아동 같은 것을 보
면서 계획을 많이 세웠죠...(2009.09.22)

가해자의 이와 같은 정상적인 면은 ‘미안하다’편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레이선:...조두순은 범행 직후 아내에게 범행 사실
을 털어놨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던 것이 아
닙니다. (2009.10.13)

이도근 형사/안산단원경찰서 강력2팀:우연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범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현장을 잤고...(2009.10.13)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나이가 많은 적든 여아에게
물리적·성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이며, 그들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권력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나레이선:...남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여
학생들을 성폭행 [...] 4개월 뒤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학생들은 모두 풀려납니다. (2009.09.22)

나레이선:결국 은지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하지

만,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009.10.13)

나레이션:...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아이진술에 일관성이 없다....(2009.10.13)

이처럼 아동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받는 것이 현실이며, 남성들이 갖는 이같은 면죄부와 특권으로 인해 아동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성인 여성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의 상처를 개인적인 것으로 안고 가야 하는 일로 인식하게 만든다. 성폭력은 피해 아동에게는 끔찍한 기억이지만, 아동성범죄자는 이를 즐기며 금전적으로 주도권을 쥔 권력자로 등장한다. 법제도 역시 범죄자를 보호하고 감싸주어 한 통속이 된다.

정OO/아동성범죄 피해자:... 여기저기 더듬거나 스킬을 즐기는 거죠... [...] 우리 집에 어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 거부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였어요. [...]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 사법부나 범죄자나 한 통속이 되어 버리는데....(2009.10.13)

4. 아동성폭력 피해자

분석대상 다큐멘터리는 아동의 인권을 강조하고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아동’을 부각시킨다.

나영이는 항문과 생식기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나영이 아버지는 ‘여성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아이이자 인간으로서의 피해보다는 여성으로서의 피해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피해는 곧 좌절로 이어지는데, 임상심리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장차 피해자가 겪게 될 여성으로서의 좌절에 대해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

임상심리 전문가:사춘기 때 [...] 외모에 대한 관심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큰 좌절이 될 거구 [...] 이성관계를 맺을 때도 장애가 될거구 그 좌절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좌절에 대해서...(2009.09.22)

아동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남성적 인식은 곳곳에서 보이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아동성범죄자는 아동을 ‘좀 더 약한 상대’이자 ‘좀 더 손쉬운 상대’라

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이충식(가명)/아동성범죄 수감자...(연령이)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그러다보니 아동에게까지 미치는 것 같습니다.(2009.09.22)

이러한 시각은 은지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동네 남성들은 장애를 지닌 11살 은지를 어린 아이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들은 피해자를 ‘늙은 것’이 아닌 ‘젊은 애’로 보고 있으며, 재미있고 쉬운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은지엄마:(은지한테)하지 말라고 하니까. 재미없다고 하면서 은지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대요. 늙은 것보다는 젊은 애가 좋다고.(2편) (2009.10.13)

연령에 상관없이 ‘남성’이라는 존재는 어린 여성이나 성인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며, 따라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뿐 아니라 맞서 싸울 힘도 없이 무기력하다.

나영이:나쁜 아저씨가 차에 언니랑 나랑 태우고 가는 꿈도 꿀 때가 있고 [...] 놀라서 도망갈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쫓아와서 계속 도망치는데요...(2009.09.22)

성범죄 피해 아동 가족:너무 무섭고 (가해자가)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 그 사람 또 나와서 보복할까봐 그게 두렵고 그래요. (2009.09.22)

국민적 분노와 관심을 촉발시켰던 나영이의 성폭행 피해는 나영이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는데, 이때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동시에 자행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영이 아버지:...그냥 사정없이 때린 거죠. 그리고서는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 번을 밀쳤나 봐요 [...] 대장에서부터 항문까지 없어요.(2009.09.22)

화면에서는 나영이가 입을 피해와 장애 내용, 팬티를 입고 주머니를 차고 있는 참혹한 사진이 공개된다.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며,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지만, 이와 같은 피해는 개인적인 불행이며 고통으로 나타날 뿐 성별 위계나 차별, 권력이나 계급 등 다양한 요소와 변인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곽희영/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방 대표:...이런 성

범죄를 당하면 가정은 완전 파쇄해지고 [...] 아이는 아이대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2009.09.22)

피해를 당한 아동은 몇 번이고 진술을 반복해야 할 뿐 아니라 법정에까지 서야 하며, 아픔을 당해도 참고 자살직진까지의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나영이아버지:...[진술 녹음]소리가 작다고 [...] 다섯 번 했죠. 그게 얼마나 죽이는 일입니까...(2009.10.13)

은지 작은 엄마:애가 와서 울더라고요 [...] 오빠들이 자기를 많이 아프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9.10.13)

정OO/아동성범죄 피해자:...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고 자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2009.10.13)

무기력하고 고통 받던 피해자들의 수동성이 3주 뒤에 방영된 '미안하다'편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나영이 아버지:...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도 임했고 저희 아이도 혹시 (사실이)알려진다 하더라도 아마 용기 잃지 않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2009.10.13)

나레이션:...아이는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9.10.13)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영이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또한 나영이의 적극적인 면도 두드러진다. 끔찍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범인의 얼굴을 기억했으며, 혼자 경찰에 신고해 결국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나레이션:...의식을 되찾은 나영이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영이는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9.10.13)

신의진 교수/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지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상당히 있는 아이였어요 [...]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수사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2009.10.13)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지닌 자들로 등장한다.

나레이션:...제 2의 나영이었다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 취재에 응해주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용기에...(2009.10.13)

후속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이전 제작물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면과 용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적 시각'으로 변화되었다기보다는 '나영이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와 동정을 수용하여 시각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성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관점과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사회적 반향을 살피는 단기적이고 즉시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위주의 단편적인 취재관행을 드러낸다.

V. 결론

이종수는 시사다큐에서 "사실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조리 있게 배열하는 내러티브(narrative) 즉 서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5]. 시사다큐멘터리가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고 할 때 서사분석을 통한 아동성폭력 재현은 우리사회가 아동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TV서사는 이들의 인권과 피해자의 아픔 사이에서 중립적이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하며, 남성의 사회적 권력은 형벌을 감해주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피해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사사화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일반인과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학자들은 이들이 '분명한 정상 상태(overt normality)'에 있다는 것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6].

이종인은 성폭력을 특정한 정신상태에 있는 일부 남성 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로 협소화시키거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거나 성폭력의 문제를 탈 맥락화, 의료화시키는 접근들은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

시켜 “성폭력 발생”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하였다[17]. 따라서 “성간의 차이, 차별, 위계들”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연계되어 있는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18]. 그러나 TV의 아동성폭력 재현은 이와 같은 작업을 간과하고 있다.

‘작고 쉬우며 약한’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3주 뒤 방영된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적 시각’에서 다소 탈피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정상적인 면과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동성폭력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해석했다기보다는 사건 위주의 취재와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식한 제작 관점 재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결국, TV다큐멘터리를 통한 아동성폭력의 재현은 사건중심의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의 사회적 맥락의 이해에는 소홀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분노는 화학적 거세나 신상공개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 제시에 급급하였을 뿐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예방책과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끝으로 TV다큐멘터리를 분석하여 아동성폭력의 재현 방식을 고찰한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KBS 1TV ‘시사기획 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이 다소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까지 움직이게 하는 등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사물의 이야기 구조만 분석하였으며, 담론 분석까지 시도하지는 못하여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표현의 형식까지 알아보았다더라면 아동성폭력의 재현을 보다 면밀히 알 수 있었겠으나 이는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기에 추후 연구 인력과 시간을 보완된다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문헌

- [1] 김남권, “아동성폭행 지난 3년간 매년 1천건 이상 발생”, 연합뉴스, 2010.06.15.
- [2] 김혜림, “아동성폭력 3년새 69% 늘었다… 선진국은 감소 추세 대조적”, 국민일보, 2010.08.01.
- [3] 정철근, “또 다른 성희롱, 아이돌 벗기기 경쟁”, 중앙일보, 2010.07.25.
- [4] 연합뉴스 사건팀, “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 국민 분노“, 연합뉴스, 2009.09.30
- [5] 유경수, “복지위, 나영이 사건 대책 주문”, 연합뉴스, 2009.10.05
- [6]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7]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unmodified : discourses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8]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제8권, 제2호, pp.1-45, 2008.
- [9] 상계논문, 2008.
- [10]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5호, pp.458-498, 2009.
- [11] 상계논문, 2009.
- [12] Jean Renvoize, *Innocence destroyed : a study of child sexual abuse*, Rouledge, 1993.
- [13] 신선인,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pp.287~319, 2006.
- [14] 조운오, 이미정, “성범죄자의 성적 이탈경험과 자기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정보학회, 제34호, pp.333-362, 2009.
- [15] 이종수, *TV리얼리티,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 구성*, 한나래, 2004.
- [16] Nigel Parton and Corinne Wattam, *Child sexual*

abuse:responding to the experiences of children, John Wiley & Sons, 1999.

- [17] 이종인, “성폭력 이론들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종족성 및 성 인지적 모색을 위하여”, 비교문화연구, 제12집, 제1호, pp.141~193, 2006.
- [18] 상계논문, 2006.

저 자 소 개

홍 숙 영(Sook-Yeong Hong)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1996년 10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1994년 2월
- 2007년 2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 뉴스콘텐츠